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1월 11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 김정회 과장, 신정환 주무관(02-2110-4825)		

'11년 자동차 산업 실적
- 수출은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, 내수는 둔화 -

□ 지식경제부는 지난 해 자동차 산업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**수출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***한 반면, **내수**는 4/4분기에 접어들면서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인해 **성장세가 둔화**한 한 해였다고 밝힘.

* '11년 자동차(완성차+부품) 수출액 : 684억불(잠정치, 국가 총 수출액의 12.2%)

○ 특히, 견조한 수출을 바탕으로 국내 누적생산 7,000만대 돌파(9월), 연간 수출 300만대 돌파(12월), 해외 누적생산 1,000만대 돌파(2월) 등의 각종 실적을 달성한 해였다고 밝힘.

< 2011년 자동차 산업 실적(단위: 대, 전년비, %) >

구 분	2009년	증감율	2010년	증감률	2011년(잠정)	증감률
생 산	3,512,926	-8.2	4,271,741	21.6	4,656,762	9.0
수 출	2,148,862	-19.9	2,772,107	29.0	3,151,930	13.7
내 수	1,454,993	19.6	1,555,988	6.9	1,579,589	1.5
국산차	1,394,000	20.8	1,465,426	5.1	1,474,552	0.6
수입차	60,993	-1.1	90,562	48.5	105,037	16.0

* 자료 : 한국자동차공업협회(승용+상용), 한국수입차협회(회원사 판매)

○ **상반기**에는 지진으로 인한 일본차의 공급차질, 수출 전략차종의 투입 확대, 쉐보레 브랜드 도입 효과 등으로 생산, 수출, 내수가 **안정적인 성장세**를 기록함

* '11년 상반기 증감율(전년동기비, %) : 생산(9.7), 수출(15.1), 내수(5.1)

○ **하반기**에는 유럽 재정위기 확산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과 내수 시장의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수출과 내수가 **상반기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됨**

* '11년 하반기 증감율(전년동기비, %) : 생산(8.4), 수출(12.4), 내수(-1.8)

□ **(수출)** '11년 수출 실적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산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비 13.7%가 증가한 **3,151,930대**로,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

① **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의 수요 회복세 및 신흥국의 성장세 유지**

* '11.1-11월 수출국 순위 : 미국(1위), 러시아(2위), 브라질(3위), 중국(6위)

- **미국**은 신용등급 하락 등 경제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요는 **회복세를 이어 가고 있으며, 신흥국** 또한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**성장세 유지**

< 미국 및 신흥국의 자동차 시장 판매 현황(단위:천대, %) >

구 분	2007	증감	2008	증감	2009	증감	2010	증감	2011	증감
미국	16,512	-3.4	13,541	-18.0	10,618	-21.6	11,788	11.0	12,922	9.6
러시아	2,751	35.1	3,057	11.1	1,506	-50.7	1,989	32.1	2,528	27.1
브라질	2,495	29.2	2,867	14.9	3,207	11.9	3,556	10.9	3,652	2.7
중국	8,922	21.6	9,645	8.1	13,979	44.9	18,960	35.6	19,344	2.0

* 자료 : J.D.Power(2011.3Q발표), 2011년은 추정치임.

② **중형급 이상 차량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평균 수출단가 상승**(자동차 수출단가 : 12,119달러/대('10) → 13,590달러/대('11.1-11월))

< 승용차 차급별 수출비중 및 증감률, 단위 : % >

구분	'08		'09		'10		'11(추정)	
	비중	증감률	비중	증감률	비중	증감률	비중	증감률
경형	7.8	51.0	10.8	10.9	9.5	13.8	9.3	12.0
소형	50.4	-11.3	57.5	-8.7	52.4	18.5	47.1	2.6
중형	**7.0**	**-0.9**	**3.6**	**-58.8**	**5.2**	**88.2**	**7.1**	**55.5**
대형**	2.3	14.0	2.3	-19.5	2.8	60.0	2.3	-5.8
SUV	**27.6**	**-6.8**	**22.5**	**-34.8**	**27.4**	**58.4**	**30.5**	**27.1**
CDV	**4.9**	**-36.2**	**3.3**	**-46.6**	**2.7**	**8.8**	**3.7**	**55.1**
승용차	100.0	-7.7	100.0	-20.0	100.0	30.1	100.0	14.2

* **중형**(쏘나타, K5, i40), SUV(투싼ix, 쏘울, 싼타페, 캡티바, 스포티지R), CDV(올란도, 뉴카렌스 등의 미니밴 차종)

** 대형차는 주요시장(미국)에 주력모델(그랜져HG) 투입이 지연되는 등으로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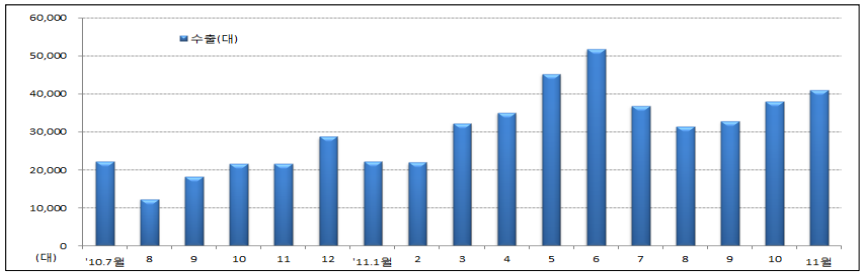
③ 지역별 수출은 EU 및 아시아 지역의 수출이 크게 증가

* 지역별 수출 증가율('11.1~11월, 전년비 %) : **EU(44.0), 아시아(34.5),** 미국(14.6), 중남미(12.4), 중동(5.1), 아프리카(2.2)

- **EU** 내수시장의 수요가 **4년 연속 감소세***에도 불구하고 EU지역으로의 수출은 **'11.1~11월** 기간 중 전년대비 **44%의 증가세**를 기록하며 **지역별 수출 중 가장 큰 증가세** 기록

* EU 승용차 시장 판매 추이(전년대비, %, 자료: 유럽자동차공업협회) : ('08)14,717천대(-5.2) → ('09)14,499천대(-1.5) → ('10)13,786천대(-4.9) → ('11.1~11월)12,577천대(-1.1)

< '10.7월 이후 EU 지역 수출 변화 >



- **아시아 지역**은 주요 시장인 중국(아시아 수출 비중 58.6%)으로의 **SUV 차량*** 수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**'11.1~11월** 기간 중 **34.5%의 증가세**를 기록

* 중국은 현대기아차 현지공장에서 주로 세단급 승용차가 생산되어 수출은 SUV차량(싼타페, 쏘렌토, 캡티바, QM5)이 수출 비중의 약 80%를 차지

** 중국 수출량 : ('10.1~11월)79,172대 → ('11.1~11월)120,271대(51.9%증가)

④ 대지진(3월)으로 인한 일본차의 공급차질로 상대적 반사효과 작용

- 일본은 완성차업체들의 생산라인 뿐만아니라 **부품공급망까지 피해가 확산**되면서 상반기에 생산차질을 겪음

* '11년 상반기 일본차 수출 증감율(전년동월비, %, 자료: 일본자동차공업협회) : 1월(7.3) → 2월(13.2) → 3월(-26.1) → 4월(-67.8) → 5월(-40.5) → 6월(-9.7)

⑤ 7종의 新차종이 수출에 투입됨

구분	승용차 수출(대)	新차종의 수출(대)	비중(%)
'11년	2,981,558	352,606	11.8

* '11년 추가 투입 전략차종 : i40, 벨로스터, 프라이드(신형), 아베오, 올란도, 캡티바, 말리부

□ **(내수)** '11년 내수는 업계의 다양한 신차출시, 쉐보레 브랜드 도입, 수입차의 선전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와 고유가 부담 등으로 **소비심리가 악화**되면서 **전년비 1.5%가 증가하여 1,579,589대**를 기록하였으며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

① 소비자 물가(유가) 상승,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

< 경기 지표 변화, 자료출처 : 기획재정부, 한국은행 등 >

- 소비자물가 ('10) 3.0% → ('11) 4.0%, 민간소비 ('10) 4.1% → ('11) 2.5%
- 휘발유 ('10)1,710원/L→('11)1,929원/L, 경유 ('10)1,503원/L→('11)1,746원/L
- 가계부채 ('10.12) 595.8조원→('11.10) 634.3조원

- 특히, 국산차 시장은 1~3/4분기까지는 전년비 비슷한 수준의 5%대 성장률을 이어 오다가 **4/4분기**에 들어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과 물가불안 심리 상승 등으로 **마이너스 성장률***을 기록

* '11년 분기별 내수판매(국산차) 변화(대수, 전년비 증감율) : (1/4) 388,575대, 5.1%, (2/4) 402,286대, 5.0%, (3/4) 395,612대, 5.2%, **(4/4) 393,116대, -8.0%**

② 연간 사상 최다 차종을 출시하며 대체수요*를 견인한 신차 효과

* 10년이상 노후차량(잠제 대체수요) : 477만대('09.12월)→535만대('10.12월)

< '11년 출시 신차 판매 점유율(단위 : 대,%)>

구분	승용차 판매	신차 판매	비중	차종
'10년	1,217,764	254,547	20.9	6종
'11년	1,211,284	285,217	23.5	13종

* '11년 신차모델 : 그랜저(HG), 벨로스터, i40, i30(GD), 모닝(TA), 프라이드(UB), 레이, 올란도, 아베오, 캡티바, 말리부, 뉴SM7, 코란도C

③ 소·중형은 감소세, 경·대형, CDV(Car Derived Van)의 선전

- 고유가에 대한 부담으로 유지비에 강점이 있는 경형, 향상된 연비와 고품질로 판매 호조를 누린 대형, 넓은 공간의 실용성을 갖춘 CDV가 점유율 상승을 보임

< 국내 승용 차급별 점유율 변화(단위 : %) >

구분(점유율%)	경형	소형	중형	대형	SUV	CDV
'10년	13.2	25.8	25.8	12.6	20.0	2.6
'11년	**15.3**	23.6	20.4	**17.3**	19.3	**4.2**

* '10년 국산 승용차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했던 **중형차**는 경·대형의 강세와 치열했던 신차경쟁이 진정되면서 **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**

④ **최대 실적을 기록한 수입차와 한국GM의 쉐보레 브랜드 도입 효과**

- **수입차**는 지진으로 인한 일본차의 공급차질속에서도 **독일 차종의 선전***으로 수입차 개방 이후 처음으로 연간 10만대를 돌파(105,037대)

  * 독일 차종(벤츠, BMW, 폭스바겐, 아우디 등)은 전체 판매의 63.7%를 차지

- **한국GM**은 '11.3월 글로벌 대표 브랜드인 쉐보레의 성공적인 도입으로 11.9%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내수판매 기록*

  * '11년 한국GM 내수 판매 : 140,705대(이전 최대 판매는 '07년 130,542대)

⑤ **그 외 쌍용차의 경영정상화**(3월)**와 자동차 5사의 무분규 임단협 타결에 따른 원활한 물량공급 등**

* 쌍용차는 3월 기업회생절차가 종결되어 인도의 마힌드라社가 인수하면서 경영정상화를 통해 전년비 내수 19.1%, 수출 54.2% 증가세를 기록

□ **한편, '11.12월 국내 자동차 시장은 전년동월비 생산 7.0% 증가, 내수 5.4% 감소, 수출은 16.2%가 증가하였음**

< 12월 자동차산업 총괄표 (단위 : 대, %) **>**

구 분	'11.12월	전월비	전년동월비	'11.1-12월	전년동기비
생 산	424,981	-0.8	7.0	4,656,762	9.0
내 수	137,883	10.2	-5.4	1,579,589	1.5
국산차	130,004	12.2	-5.4	1,474,552	0.6
수입차	7,879	-14.6	-5.0	105,037	16.0
수 출	301,639	0.1	16.2	3,151,930	13.7

(자료 : 한국자동차공업협회, 한국수입차협회)

□ **12월 SAAR**(Seasonally Adjusted Annual Rate)은 **1,479,310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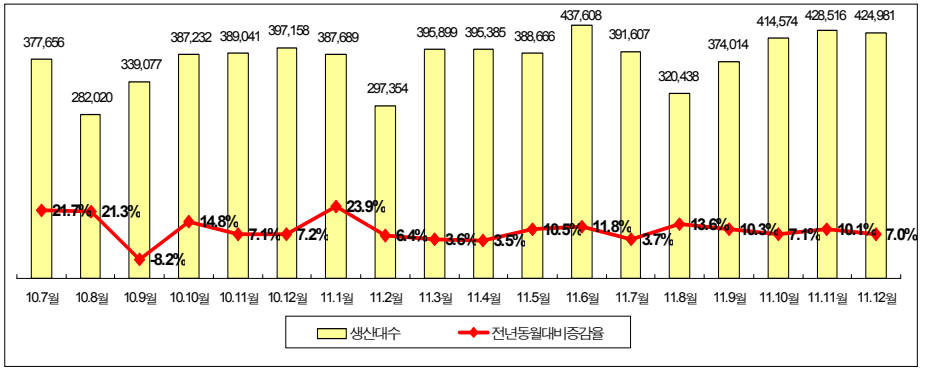
※ **계절조정 연간 자동차 판매대수**는 **월 판매량을 1년으로 추산한 수치**로 경기예측을 위한 선행지표

* 단, **계절조정 연간 자동차 판매대수(SAAR)은** 해당 월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연간 판매대수를 산출하는 수치로, **실제 실적과는 다를 수 있음**

참고 1 12월 자동차 생산 동향

□ **12월 생산**은 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증가로 **전년동월비 7.0% 증가한 424,981대** 기록

< '10.7월 이후 월별 자동차 생산추이>



○ **현대**(185,711대)와 **기아**(152,251대)는 주력 차종들의 해외인기가 높아지면서 **전년동월비 30.4%, 3.3% 각각 증가**

○ **한국지엠**(69,253대)은 내수와 수출이 감소하면서 **2.6% 감소, 르노삼성**(8,884대)은 생산물량 재고조정으로 **66.4% 감소, 쌍용**(7,931대)은 내수와 수출의 부진으로 **12.2% 감소**

< '11. 12월 업체별 생산 현황 (단위 : 대, %) **>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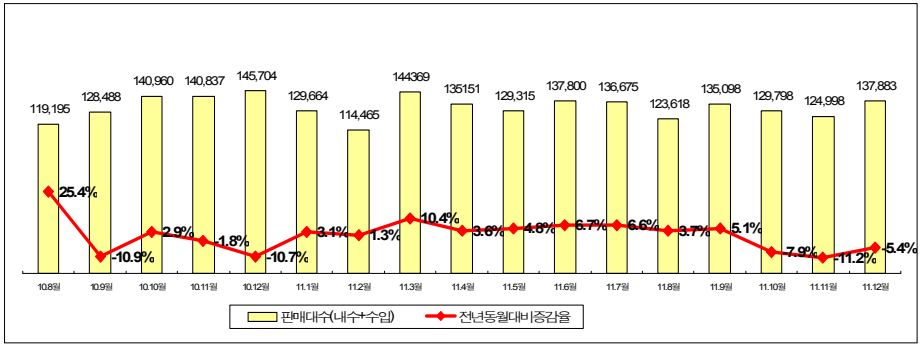
구 분	'11. 12월	'11.1 - 12월	점유율	증감률 전월비	증감률 전년동월비	증감률 전년동기비
합 계	424,981	4,656,762	100.0	-0.8	7.0	9.0
현 대	185,711	1,891,801	40.6	6.9	30.4	8.5
기 아	152,251	1,583,921	34.0	-2.0	3.3	11.8
한국지엠	69,253	810,854	17.4	-6.8	-2.6	9.0
르노삼성	8,884	244,260	5.2	-44.4	-66.4	-11.3
쌍 용	7,931	113,249	2.4	-3.4	-12.2	41.4

* 자료 : 한국자동차공업협회

참고 2 12월 자동차 내수판매 동향

□ **12월 내수판매**는 국산차와 수입차가 모두 전년동월비 감소하면서 **5.4%가 감소한 137,883대 기록**

< '10.8월 이후 월별 자동차 내수판매(국산+수입) 추이 >



□ **(국산차 판매)** 12월 국산차 판매는 자동차업체의 연말 판촉강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동월비 5.4% 감소한 130,004대 기록

○ **현대**(58,499대)와 **기아**(45,056대)는 그랜저와 12월부터 출고된 레이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**전년동월비 2.7%, 0.4%** 각각 **감소**

○ **한국GM**(13,614대)은 신차 말리부 호조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로 **4.9% 감소**하였으며, **르노삼성**(8,826대)과 **쌍용**(3,502대)도 경기둔화 우려로 인한 전반적인 시장수요 위축 등으로 **33.0%, 7.5%** 각각 **감소**

□ **(수입차 판매) 12월** 수입차 판매는 **전년동월대비 -5.0%로 7,879대를 판매**하며 '11년 월간으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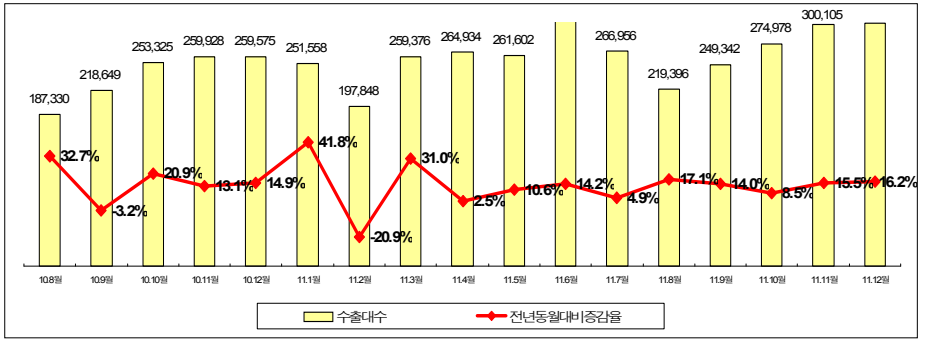
○ **12월 수입차 내수시장 점유율은 5.7%로 전월대비 1.7%p 하락**

* 수입차점유율(%) : 7.4('11.8월)→7.4('11.9월)→6.3('11.10월)→7.4('11.11월)→5.7**('11.12월)**

참고 3 12월 자동차 수출 동향

□ **12월 수출은**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산차의 제품경쟁력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전략차종 투입확대 등으로 **전년동월비 16.2%가 증가한 301,639대** 기록

< '10.8월 이후 월별 자동차 수출추이 >



○ **현대**(128,971대)는 엑센트, 아반떼, 투싼, 싼타페 등 주력차종의 해외 수요가 확대되면서 **전년동월비 53.1% 증가, 기아**(105,791대)도 신형 프라이드, 모닝, 쏘렌토R 등이 호조를 보이면서 **11.9% 증가**

○ **한국지엠**(54,421대)은 유럽 현지 재고조정 등으로 **9.1%, 르노삼성**(6,925대)은 생산물량 조정으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**54.7%, 쌍용**(5,163대)은 코란도스포츠 출시 예정에 따른 대기수요 등으로 **4.7% 각각 감소**

< '11.12월 업체별 수출 현황 (단위 : 대, %) **>**

구 분	'11. 12월	'11.1 – 12월		증 감 률		
			점유율	전월비	전년동월비	전년동기비
합 계	301,639	3,151,930	100.0	0.1	16.2	13.7
현 대	128,971	1,203,246	38.2	9.0	53.1	12.2
기 아	105,791	1,077,003	34.2	-3.1	11.9	17.1
한국지엠	54,421	656,425	20.8	-6.2	-9.1	7.5
르노삼성	6,925	137,738	4.4	-27.2	-54.7	19.0
쌍 용	5,163	73,630	2.3	-14.2	-4.7	54.2

* 자료 : 한국자동차공업협회

참고 4 12월 업체별 자동차 판매 현황

< '11.12월 업체별 자동차 판매현황 (단위 :대, %, 소수 두자리 반올림) >

구 분	'11.12월	전월비	전년동월비	비중	'11.1-12월	전년동기비
합 계	137,883	10.2	-5.4	100.0	1,579,589	1.5
국 산 차	130,004	12.2	-5.4	94.2	1,474,552	0.6
현 대	58,499	6.9	-2.7	42.4	684,157	3.7
기 아	45,056	15.4	-0.4	32.7	493,003	1.8
한국지엠	13,614	26.1	-4.9	9.9	140,705	11.9
르노삼성	8,826	13.8	-33.0	6.4	109,221	-29.6
쌍 용	3,502	18.6	-7.5	2.5	38,651	19.1
수 입 차	7,879	-14.6	-5.0	5.7	105,037	16.0
벤 츠	1,969	17.7	37.0	1.4	19,534	21.2
BMW	1,020	-40.3	-25.3	0.7	23,293	38.7
폭스바겐	725	-12.8	-11.7	0.5	12,436	22.5
아우디	560	-47.3	19.4	0.4	10,345	30.6
렉서스	464	15.4	-15.3	0.3	4,111	6.6
토요타	426	2.7	-51.1	0.3	5,020	-24.3
닛 산	387	-55.3	26.1	0.3	3,802	7.9
포 드	382	-17.5	-2.1	0.3	4,184	4.1
MINI	353	2.3	178.0	0.3	4,282	92.9
혼 다	326	35.8	-50.8	0.2	3,153	-45.8

* 출처 : 한국자동차공업협회, 한국수입자동차협회